

GILLETTE & L'ORÉAL, WOMEN USA

Alabama • Alaska • Arizona • Arkansas • California
Colorado • Connecticut • Delaware



GILLETTE & L'ORÉAL, WOMEN USA — VOL. I

L'ORÉAL THROUGH GILLETTE · 00

미국 횡단의 첫 구간: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시리즈 여섯 권이 함께 나누는 북극의 서장, 제0장으로 시작한다.

제0장 — 공통의 서장

이 첫 장은 미국의 여성들 시리즈 여섯 권 모두에 공통으로 실린 장이다. 여기에 전문을 신뢰, 시리즈를 반복 없이 차례로 읽을 수 있도록 접어 두었다.

제0장

이곳에서 세상은 영토가 아니다: 한계다. 북극은 반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양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한다, 말없이, 기억도 없이. 기온은 기상 정보가 아니다: 포식자다. 밤은 몇 달 동안 이어지며 생각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윤곽을 일그러뜨리고, 그들의 의지를 삼킨다.

공동체는 몇 되지 않고, 작고, 닫혀 있다. 이누이트, 유픽, 북극의 민족들은 아무도 머물기를 택하지 않을 곳에서 산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쓸모가 없으면 짐이 된다. 그리고 짐이 된 사람들은 침묵 속으로, 눈 속으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환경의 논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 기지는 또 다른 종류의 냉기를 더한다: 위계의 냉기다. 이곳에서 여자는 드문 존재, 적응하거나 무너져야 하는 변칙이다.

이곳에는 '실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을 지우는 하양만 있을 뿐이다.

이누이트와 유픽의 여자들

북극의 소녀는 귀하게 자라지 않는다: 준비된다. 일찍부터 추위와 어둠과 굶주림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 씨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것이다. 여자는 가족과 공동체의 짐을 진다: 음식, 불, 아이들, 가족, 돌봄. 아무도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연약함을 말하지 않는다. 우울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다. 폭력은 존재하지만 증인이 없다.

과학 기지의 여자

교육받았고, 유능하고, 규율에 익숙하다. 그녀는 연구원으로, 기술자로, 의사로 도착한다. 그리고 곧 북극이 자격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정신의 강인함만이 중요하다. 남자들의 위계가 그녀를 지배하고, 약해 보이는 어떤 기색도 나약함으로 해석된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다: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서구에서 온 '바깥'의 여자

자유 속에서 자란 그녀는 추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착한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를 부순다: 고독, 비좁은 공간, 끝없는 침묵. 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계 장치다. 그리고 남자들이 설계한 기계 장치 안에서 여자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세상 끝으로 가는 여행

이웃인 Antonio, 다들 Nino라고 부르는 그는 몇 년째 노르카프와 백야, 어둠이 없는 몇 달 이야기를 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 둔 꿈, 불가능한 무언가 같은 것이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나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말만 했다. "여행 가방 싸요.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30일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는 놀라서, 기뻐서 나를 바라 보았다. 걱정이 된 그의 아내가 우리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꿈을 쫓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아내들은 미친 사람 보듯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이 여행은 진짜였다. Nino는 벌써 질문투성이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해요?” “진정해요.” 내가 말했다. “54시간이면 도착해요. 고작 5,000km예요. 새 Range Rover를 타고 가잖아요. 드라이브를 즐겨요.”

300km마다 멈춰야 했다: 나보다 열두 살 많은 그에게는 그만의 리듬이 있었다. 나는 물과 마실 것을 챙겼고, 그는 커피와 생리적인 불일을 챙겼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그 끝없는 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이었다.

차 안에 단둘인 남자 두 명은 언제나 여자 이야기를 한다. 그는 평생 아내 한 사람밖에 몰랐다. 나는 웃었다.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는 60시간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러시아 이야기를 했다, 스물두 살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를 만나러 51시간을 운전했던 일을. “거리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핑계일 뿐이죠. 나는 핑계를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하얀 세계에 도착하다

우리는 노르웨이에 들어섰다. 길가의 숙소 하나. 차는 거기 두고 썰매로 계속 갈 참이었다.

가이드는 온몸을 감싸고 있어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고글을 벗었을 때에야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노르웨이 여자, 말이 없고, 단도직입적이고, 얼음 같았다. Nino는 썰매 가운데, 그녀는 앞, 190cm의 나는 뒤에서 맨 끝을 맡았다.

아직 낮이었다. 시계는 시각을 알려 주었지만, 밤인지 아침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백야였다. 우리는 노르카프에 도착해 있었다.

Nino는 울었다.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게이로 알겠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었다.

그리고 혹한이 찾아왔다: 영하 52도.

진짜 북극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를 금속 컨테이너로 데려갔다. 지독하게 무겁고 숨을 두른 방한복, 복잡한 지퍼로 여미는 옷이었다.

나는 가이드 비용을 냈다. Nino는 남자 몇 명과 함께 이글루 하나에 남겨졌고, 나는 다른 이글루에 한 가족과 함께 남겨졌다: 일흔에서 여든 사이의 노인 한 명과 서른에서 쉰 사이의 여자 세 명.

단한 세계였다. 단순했다. 잔혹했다.

남자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여자들이 일의 박자를 이끌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글루에서 5미터 떨어진 언덕이었다: 똥은 땅에 닿기 전에 얼어 버렸다. 나의 첫 오줌은 노란 북극의 별이 되었다. 북극이 내게 건넨 인사였다.

중년의 여자 Magi는 영어를 조금 했다. 나머지는 몸짓, 눈빛, 손이었다. 추위의 언어.

방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사타구니를 만져 숨은 지퍼를 보여 주었다. 악의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기능일 뿐이었다. 생존.

이글루에서의 사흘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다. 훈제 생선, 날생선, 대구 간, 고래 뱃살. 그리고 상어 완자. 선택은 없었다. 대안도 없었다. 자연이 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다음 나는 마셨다: 붉은 액체를. 와인인 줄 알았다. 거르고, 끓이고, 달게 만든 고래 피였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힘을 주었다. 원초적인 에너지. 코카인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북극이었다.

여자들은 나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냥하러 나갔다. 나는 쉬면서 피를 마셨다. 전화도, 인터넷도, 컴퓨터도, Nino도 없는 사흘. 나와 그들뿐이었다.

밤은 없었다. 빛과 불과 얼음과 숨결만 있었다.

세 여자가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자리를 찾았다. 가장 젊은 여자가 팔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다.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좀 건네려 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저 포옹을 원했다.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도록 칼라브리아 말 몇 마디를.

거기서 나는 진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고팔 수 없는 선물.

가이드의 작별

사흘 뒤 가이드가 왔다. 그녀는 세 여자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밖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세계, 그들의 법이었다.

컨테이너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가이드가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채. 단도직입적으로. 북유럽 사람답게.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다. 그녀의 눈은 8월의 하늘처럼 파랬다.

그녀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안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 하나만 남겼다. "필요한 게 있으면 편지를 써요. 도와줄게요." 그녀는 돈마저 거절했다.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외로웠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추위가 용서하지 않는 외로움.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Nino를 데리러 갔다. 그는 신이 나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내와 약속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자기의 사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종이와만 나누었다.

그렇게 Nino가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또 다른 목적지. 또 다른 만남.

환영한다.

에필로그

북극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다. 남자들은 빛과 침묵과 사진과 꿈을 찾아 북극에 온다. 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머문다.

남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 침묵한다.

남자들은 돌아간다. 여자들은 남는다. 추위 속에, 눈으로 지은 집 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 침묵 속에 남는다. 자신들을 기리지 않는 공동체를 떠받치기 위해 남는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낯선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는다. 보이지 않는 채로 남는다.

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왔다: 아름다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나 혼자인 여자.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의미에서.

성찰

북극은 몸을 죽이지 않는다. 존재를 죽인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양이다: 여자들이 살아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곳.

그래서 나는 쓴다. 극한의 장소들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의 땅이 나를 낳았고, 나머지 세상은 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아 준다.

북극의 절대적인 하양에서, 나는 미국의 절대적인 혼란 속으로 내려갔다.

미국

불가능한 임무

미국 회사에서 18년을 일하면 세상 어떤 회사도 줄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일의 문화, 절차, 분명한 사명, 그리고 이론이 아닌 가치 체계—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당신 안에 지어 준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뉴욕 사무소에 있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제안받았다. 승진이 아니었다. 전근도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미국 안에서 인간관계의 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비밀 프로그램. 그들은 매니저도, 심리학자도, 트레이너도 고르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골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나왔다—영업에서 18년을 보낸 나였는데도. 그들은 직책을 보지 않았다: 머리를 보고 있었다.

시험은 설명하기는 간단했고 해내기는 극도로 어려웠다:

1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방문할 것, 도시는 직접 고르고 각 도시에 적어도 일주일의 머물 것.

마지막 2주는 강제 휴가였다. 모든 비용은 그들이 댈 것이었다. 나는 그저 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인간적이고, 건조하고, 정확한 기록을.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알렸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매달 오는 생필품이 도착했는지만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미국에서의 1년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다음 달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만일을 위해 내 급여는 이탈리아의 내 은행 계좌로 곧장 입금되었다. 그것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정중한 방식이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가진 것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누구인지 보자.”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나의 원래 보고서들과 분석들, 그들이 나에게 대해 모아 둔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거기서 태어났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이 일을 의뢰한 회사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상관없다. 이 이야기는 로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할까?

논리적인 선택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였다:

1. 나는 실험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정신은 맑고, 주의력은 최대였다.
2. 극단에서 시작하면 진로를 바로잡으며 여행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 국경에서 시작해야 했다. 서류상으로만 미국인 곳에서.

나는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를 골랐다. 고립된 곳. 배나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는 곳. 누구의 것도 아닌 도시. 출발하기에 완벽한 곳.

자원을 최적화하라

떠나기 전, 나는 미국인이 무엇보다 존중하는 일을 했다: 관광객이 아니라 프로처럼 준비를 갖춘 것이다.

국내 노선망이 가장 넓은,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 세 곳에 전화했다. 한 시간도 안 되어 60% 할인된 국내선 항공권 50장 묶음을 샀다.

기간 제한 없음. 날짜 제한 없음. 제약 없음. 조건은 단 하나: 1년 안에 쓸 것.

호텔 체인, Uber 택시, 렌터카 회사와도 똑같이 했고, 그런 다음 일정표를 제대로 짰다, 구간과 방식은 정하되 시간은 정하지 않은 일정표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성공이었다. 내가 움직일 줄 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미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회사가 그 거래를 보았을 때, 그들은 미국 문화가 언제나 하는 일을 했다: 신뢰도를 확인한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 거리,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나는 독립적인가?

그래서 떠나기 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신용카드의 월 한도를 최소 10만 달러로 확보해 둔 것이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율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평가받을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었다. 사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행한다

알래스카는 지리상으로만 미국의 일부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다.

여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다. 신고가 결코 목적지에 닿지 않는 곳. 도시들이 야생의 대륙 한가운데 떠 있는 문명의 섬에 불과한 곳.

주노는 나의 첫 시험이었다: 나라의 다른 곳과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주도. 미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국의 한 조각.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지리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적인 것일 것이다.

블록 1 (제1권)

앨라배마 – 알래스카 – 애리조나 – 아칸소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플로리다 – 조지아

블록 2 (제2권)

하와이 – 아이다호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아이오와 – 캔자스 – 켄터키 – 루이지애나 – 메인 – 메릴랜드

블록 3 (제3권)

매사추세츠 – 미시간 – 미네소타 – 미시시피 – 미주리 – 몬태나 – 네브래스카 – 네바다 – 뉴햄프셔 – 뉴저지 – 뉴멕시코

블록 4 (제4권)

뉴욕 – 워싱턴

블록 5 (제5권)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다코타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오리건
– 펜실베이니아 –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블록 6 (제6권)

사우스다코타 – 테네시 – 텍사스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웨스트버지니아 – 위스콘신 – 와이오밍 앨라배마 앨라배마는 그저 미국의 남부가 아니다. 결코 식지 않는 역사의 한 조각이다. 이곳에서 노예제는 한 장(章)이 아니다: 그림자다. 인종 분리는 기억이 아니다: 흥터다. 신앙은 위안이 아니다: 통제다. 이 주에서는 모든 것이 무겁다. 더위가 무겁다. 가족이 무겁다. 전통은 무엇보다 무겁다. 종교는 목을 조르는 허리띠처럼 조여 온다. 공동체는 지켜보고, 심판하고, 기억한다. 정말로 잊히는 것은 없다. 정말로 용서받는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 여자들이 있다. 이름도 불리지 않은 채 집 전체를 꾸려 가는 여자들. 세 교대로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는 여자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월요일에는 말없이 떠는 여자들. 남편이 일에 지쳐 있거나,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들. 같은 하루 안에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삶의 기둥이 되는 여자들.

앨라배마 여자들의 삶은 끊임없는 시계추다:

– 결혼하려고, 도망치려고 일찍 집을 떠나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여자들이 있다

– 이혼 때문에, 잃어버린 일자리 때문에, 입막음당한 폭력 때문에 돌아오는 여자들이 있다

그들은 단련된 여자들이다. 연약하지 않다. 반항아도 아니다. 피해자도 아니다.

단련되었다.

그들의 저항은 소리 없지만 절대적이다.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의 힘이다, 무너지면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을 테니까.

다이너의 웨이트리스

커피와 튀김 냄새가 났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어디서나 통하는 규칙 하나를 떠올렸다: 가난해 보이는 곳일수록 음식은 맛있다. 나는 이런 진실들을 길 위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Carol이었다.

금발—타고난 것일 수도, 아닐 수도—거칠어진 손, 재빠른 미소, 흐릿한 눈. 그녀는 모두에게 똑같이 지친 우아함으로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본다. 일하는 천사를 보면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그녀가 나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뭘 드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탈리아였다면 나는 내 진심을 말했을 것이다. 그래도 해 보았다: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멍하니 나를 보았다. 아니면 못 알아들은 척했다—모든 것을 알아들었으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어떤 토박이들처럼. 다시 말해 봐야 소용없었다. 그래서 주문했다:

핫도그. 맥주. 그리고 디저트와 함께 블랙 아메리칸 커피.

내가 그녀의 호기심을 건드린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그것이 보였다. 몇 분 뒤 그녀가 돌아왔다. “10분 뒤면 제 근무가 끝나요... 앉아도 될까요?”

나는 좋다고 했다.

그녀는 등을 구부린 채 앉았다, 한 번도 쉬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내 눈을 보며, 아무런 극적인 기색 없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라크에서 죽었어요. 아이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는... 저한테 맞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때로는 말이 모욕이 된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단히 쥐었다. 건조하고 깨끗한 몸짓.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100달러를 남겼다.

나는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 있었다, 놀란 듯이, 상처 받은 듯이, 고마운 듯이. 무언가를 더듬더듬 말하고 있었지만 내게 까지 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나는 Carol의 삶에 관한 진실을 이해했다:

그녀는 결코 앉지 않는다.

가스펠 가수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나는 내 영적인 자아를 만져 보고 싶었고, 앨라배마에서 그것은 교회에 간다는 뜻이다. 그곳에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무대다.

더워 때문에 활짝 열어 둔 정문으로 내가 들어섰을 때,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나는 옆문을 고르지 않았다. 그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도착한 것을 다들 알아차리기를 바랐다.

그는 나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여.” 나는 대답했다. “당신도 어서 오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오르간이 울리기 시작했다: 높고 익숙한 소리, 아무도 유명하지 않을 때조차 Aretha Franklin을 떠올리게 하는 그 ‘미국의 유령’.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하지 않았다: 풀려났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부류가 아니라, 삶에 짓눌릴 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깨우려고 운명이 단 한 번 눈앞에 데려다 놓는 부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했다. 그녀의 삶은 작았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일요일마다 노래했다. 살아남으려고 일주일 내내 침묵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나갔다. 나는 다가갔다. 그녀는 놀랐다: 그곳에서 가스펠 가수에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기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과 같다: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나는 그녀와 악수했다.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넸다, 고귀한 여자들에게 바치는 그런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아니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나뿐이었다. 그리고 1분 동안 나는 거기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천장에서 내려온 천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오늘 나는 인간으로 남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은 신호였다. 나는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았다. 흡수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호기심이 질문으로 터져 나오려던 참이었지만, 나는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 나그네님!” 숨이 가득 실린, 고통이 아닌 무언가가 가득 실린 커다란 외침.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도와 달라는 외침과 ‘왜’라는 외침을 구별할 줄 안다. 그것은 ‘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답이 필요 없었다. 나의 봉헌물은 그녀의 발치에 남았다. 그것이 나의 표시였다. 나머지는 그녀가, 아무도 박수 쳐 주지 않은 그녀의 남은 삶에 대해 쓸 것이다.

여대생

그녀는 책과 은근한 차별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캠퍼스 밖에 앉아, 그곳 교수가 된 옛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캠퍼스는 뛰어나고, 웃고, 남들이 보지 않는 척하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다.

옛 동료가 도착하자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여학생은 그 장면을 보았다.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포옹에 답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만을.

교수는 다른 일정 때문에 서둘러 가야 했다. 그녀는 짧은 인사와 그리운 기색을 남기고 나를 안뜰 한가운데 두고 떠났다. 나는 분수대 가장자리, 여학생 옆에 가서 앉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초대도, 방어도 아닌 그런 미소였다. 진실이었다.

“당신의 꿈은 뭐예요?” 내가 물었다. “짧고, 똑똑하고... 그리고 끝내주게 아름다운데.”

그녀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우쭐해하지도 않았다. 현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짧게 대답했다:

“남부에서 도망치는 꿈을 꾸요.

그런데 남부는 어디든 나를 따라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남부 이탈리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웃었다. 짧은 웃음, 무거움 속으로 창을 하나 여는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정체성과, 과거와, 기대와 씨름하도록 태어났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늘 남들에게 변하라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돼요.”

그녀는 젊었다. 하지만 그녀가 짊어진 무게는 젊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품위 있게 짊어지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연설도 약속도 아닌 무언가를 그녀에게 남기고 싶었다. 진실만을.

“기억해요, 아가씨:

남부와 북부의 관계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와 같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해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잘 있어요.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에는 캠퍼스 전체보다 더 많은 미래가 있었다.

현대 플랜테이션의 여자

나는 주 상공회의소 회장과 약속이 있었다. 나는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어떤 제도권의 역학은 다시 마주치는 순간 곧바로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르고, 우아했다. 금시계. 오래된 부의 은은한 향. 과시하는 부가 아니라 몸에 걸치는 부. 이곳의 부자들에게서는 돈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냄새가 난다.

그는 자기 주를 자랑스러워했다.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했다. 엘라배마의 경제가 나라 전체를 떠받친다고 확신한 그는 나를 목화 플랜테이션에 데려가 그것을 증명하기로 했다. 먼저 땅. 그다음 가공. 그다음 현대 농업 산업, 사슬은 걸어 냈지만 같은 리듬은 남겨 둔 그 산업.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태양이 그녀의 등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꿈쩍하게 느끼고, 정확하고, 불평 한마디 없었다. 한창 나이의 여자였고, 얼굴

은 피로가 조각한 것 같았다. 어깨에 얹힌 가족. 주름진 피부. 단단한 눈. 단 한 번도, 결코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의 박자.

나는 회장에게 일꾼들과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핑계였다. 나는 그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오래된 몸짓, 자리에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몸짓. 나는 곧바로 그녀를 말렸다.

"일어나요." 내가 말했다. "나는 주교가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말로 바라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듯이. 나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러고는 떠났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다시 갔다. 나를 둘러싼 정치적인 연극 없이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나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를 보자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수줍음. 존경. 그리고 말하고 싶은 억눌린 마음.

나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느린 몸짓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남부의 숨겨진 연속성의 얼굴이었다: 한 번도 지워진 적 없는 오래된 고역. 더 잘 숨겨졌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늘 가지고 다니는 Padre Pio의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뒷면에 나는 이렇게 써 두었다:

"고통은 지나간다고 잊히지 않아요.

용서할 때에야 잊혀요."

나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에필로그 - 엘라배마

엘라배마는 주가 아니다: 심판이다. 과거가 지나가지 않고 현재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곳. 모든 것이 아직도 두 줄로 쓰여 있다: 서 있는 사람과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서 있는 사람은 여자다.

나는 네 개의 다른 얼굴과 하나의 같은 진실을 보았다: 결코 앉지 않는 웨이트리스, 숨 쉬기 위해 노래하는 가스펠 가수, 자기를 뒤쫓는 남부에서 도망치기를 꿈꾸는 여학생, 오래된 고역을 물려받은 새로운 플랜테이션의 일꾼. 네 개의 이야기. 같은 뿌리. 같은 소리 없는 싸움.

엘라배마에서 여자는 지켜 주면서 벌하는 신앙, 떠받치면서 숨 막히게 하는 가족, 지켜보면서 심판하는 공동체 안에서 산다. 그런데도 그녀는 버틴다. 굴복하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남부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묘사한다. 여자들은 그것을 시험으로 겪는다.

성찰 - 엘라배마

진실은 단순하다: 남자가 이름을 내거는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엘라배마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삶들은 비명을 지르는 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삶들에게는 들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내가 할 줄 아는 일을 했다: 지나가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러고는 방해하지 않고 떠나는 것.

미국의 남부는, 지구의 남반구처럼, 수 세기 동안 변함없이 통해 온 규칙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변한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주가 아니다: 살아 있는 변경이다. 대륙만큼 넓은 땅, 인간은 손님이고 자연이 결정하는 곳. 하늘길로만 이어진 도시들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의사를 보는 마을들. 전기가 사치이고 따뜻한 물이 특권인 집들. 이곳에서 추위는 기후가 아니다: 하나의 인물이다. 사람을 빔고, 습관을 주무르고, 침묵을 강요한다. 삶은 불가능한 거리와, 고된 노동과,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말하고 사랑하고 살아남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 고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주민 공동체들은 수 세기의 전통을 짊어지고 있다. 여자들은 주춧돌이다: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 하지만 그들은 목소리가 아니다. 자신들이 견디는 것을 나눌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들—앵커리지, 페어뱅크스, 주노—에서는 세상이 더 빨리 움직이지만, 외로움은 그대로다. 여자들은 일자리와 자유와 미래를 찾아 온다. 많은 이가 교외에, 석유 회사의 교대 근무에, 나쁜 관계에, 기관들의 침묵에 삼켜지고 만다.

알래스카에서는 여자가 쓰러져도 그 소리가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 추위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사라진 채로 남는다.

택시 운전자 여자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이면 충분했다. 얼어붙은 도로 위의 45분, 마흔 살의 과부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게 말을 걸었다. 알래스카에서는 늘 이렇다: 사람들은 혼자 살지만, 들어 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음을 연다.

나는 그 여행 내내 작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었다. 직책도, 회사도, 시험도 없이. 나는 익명으로 남았다, 사실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말로는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누군가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이해하라고 내게 돈을 대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늘 하는 질문들로 시작했다: 나이, 직업,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나는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 “약혼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웃음은 여자의 신뢰로 들어가는 여권이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세계 안에 있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핑계를 찾아 내 여행 가방을 들고 방까지 나를 바래다주었다. 나는 곧바로 무언가를 이해했다: 여자는 무언가를 원할 때 묻지 않는다. 가져간다.

그것이 조심해야 한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존중할 일이었다: 알래스카에서 밤에 혼자 운전하는 여자는 누구보다 남자를 잘 읽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마흔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는 친구로 남았다. 지금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녀는 조언을 구하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뿐이죠.”

살아남기 위해 얼어붙는 추위 속을 달리는 여자. 그리고 남들이 그녀를 이해해 준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남들을 이해해 온 여자.

국경 여성 경찰관

나는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다. 여행할 때 나는 늘 같은 일을 한다: 서류와 지갑은 호텔에 두고 호텔 명함만 가지고 나간다. 몇 년째 이어 온 습관이다. 집들과 추위와 알래스카의 침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찰차 두 대가 들이닥쳤다. 여성 경찰관 두 명이 뛰어내려 차량을 막고, 노란 테이프를 치고, 방금 살인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한 구역을 봉쇄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는데, 몇 초 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했다. 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싶어 했다.

무엇의 증인?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산책하던 남자였을 뿐이다.

‘사건’은 이것이었다: 개 한 마리가 질식해 죽었다. 누군가 물도 없이 핫도그를 먹었던 것이다. 알래스카에서는 이것도 범죄다.

그 순간 나는 영화 촬영장에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알래스카였다.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다.

그들은 나를 순찰차에 태워 서류를 가지러 호텔로 데려다주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프랑스어를 잘했고, 프랑스어로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개는 죽었다. 범인을 찾아야 했다. 내가 거기 있었으니, 나는 신문을 받을 처지였다.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 두 마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복미의 논리로, 그것만으로 나를 ‘용의자 아님’으로 여기기에 충분했다.

긴장이 풀렸다. 형식은 증발했다. 그리고 저녁 초대가 왔다.

제복을 벗은 그 여성 경찰관에게는 얼음 한가운데서는 기대하지 못할 불꽃이 있었다. 멕시코 여자나 스페인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잊어라: 알래스카 여자들은 놀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뜨겁다.

저녁 식사는 소박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다. 내 농담에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인 것처럼 웃었다. 이곳, 이렇게 외딴 곳에서 웃음은 귀한 물건이다.

마지막에 우리는 약속도 기대도 없이 작별했다. 단 하나만이 강하고 날카롭게 남았다:

침묵.

알래스카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에 언제나 찾아오는 그런 침묵. 그리고 그것은 얼음보다 무겁다.

대학교의 아가씨

나는 호텔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물어 두었다. 내게 도서관은 언제나 이상적인 곳이었다: 안에는 침묵, 밖에는 말. 사람들이 고요를 웃처럼 입었다가, 문을 나서자마자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곳.

나는 곧바로 Elga—사서 보조—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빨간 테의 모던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북쪽 여자에게서는 스타일과 개성과 타고난 관능을 전해 주는 디테일이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 한잔하라고 했다.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도서관 문을 잠그고 우리는 나갔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닿았지만, 우리가 탈 버스는 불과 몇 분 전에 떠나 버렸다. 끝내 연결되지 않은 전화. 놓쳐 버린 기차. 기회가 되는 작은 균열들 가운데 하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알아 온 사이인 것처럼 내 팔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영국식 홍차와 비스킷을 내왔다, 소박하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환대였다. 나는 우연히 거기 있게 된 이탈리아 남자였고, 그녀는 미래의 한 조각을 찾는 젊은 대학생이었다. 그 작고 정돈된 거실에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했다: 알래스카에서 친절은 짧은 몸짓이다. 즉각적인 행동이다. 격식이 아니다: 필요하다.

그녀는 남편감을 찾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녀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그녀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받으려고가 아니라 주려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었다.

3년 뒤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사진 한 장.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 그리고 단 한 문장:

“아이에게 당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에요.”

서리가 모든 것을 덮는 나라에서, 때로는 작은 몸짓 하나면 결코 녹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주부

나는 내가 식단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여행할 때는 괜찮았지만, 추위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는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아니었다. 나는 식당을 나와 시장에 가기로 했다.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다: 잘 먹고, 현지 사람들을 더 잘 관찰하는 것.

지방의 슈퍼마켓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얼마나 쓰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피로를 어떻게 견디는지. 그 도시에서 가장 솔직한 진열장이다.

이탈리아 프로슈토 한 봉지와 물소 모차렐라 조금—그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는 드문 사치—을 집어 들었을 때, 물건이 가득 찬 쇼핑 카트 하나가 내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본능적으로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여자들은 무엇이든 ‘우연히’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다. “프로슈토에 모차렐라라... 이탈리아 사람이 틀림없죠?” 그녀는 1초 만에 모든 것을 알아챘다: 국적도, 취향도, 장 본 물건의 우아함까지도.

그녀의 이름은 Rose, 쉰여섯 살이었다.

그녀는 딸과 사위, 손주 둘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그녀의 기쁨이자 짐이었다. 집 한 채를 떠받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

하는 그런 여자.

나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자고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장보기를 마치고, 짐을 차에 싣고, 차를 몰아 내게로 돌아왔다.

테이블에 앉자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많이. 나는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다. 때로는 가장 강한 말이, 상대가 쓰도록 내어 주는 침묵이다.

어느 순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탈리아 사람, 사랑, 엄마, 피자, 스파게티..." 고정관념으로 지은 흔한 말이었지만, 진짜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을지 궁금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말했다: 자기는 작가라고. 그리고 내가 필명으로 낸 책 한 권을 샀다고. 다행이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삶을 이야기했다, 꼭 찬 집, 모두 똑같은 나날, 손주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너무 당연해 보여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마침내 말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천 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말만 했다. "내일 당신 책을 살게요. 그리고 서평을 보내 드릴게요."

그녀는 감동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쩔 이렇게 우아하고 예의 바른 분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다. "손과 발을 봐요. 거기서 사람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Rose는 미소 지었다. 오후 한나절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를 멈춘, 보이지 않는 여자의 미소였다.

에필로그 -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당신을 반기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 당신을 관찰한다. 당신을 켜다. 당신이 하루 더 머물 만큼 정직한지, 떠날 만큼 제정신인지 알게 될 때까지 당신을 붙잡아 둔다.

이 주에서 거리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곳이라면 몇 초 만에 끝날 침묵 속에 사는데, 여기서는 그 침묵이 몇 달이 된다. 고독은 그들의 모국어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잘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다. 나는 네 가지 다른 역할의 네 여자를 보았고,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는 멈추지 않으려고 운전했다. 여성 경찰관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통제했다. 여대생은 현재를 빼앗아 가는 곳에서 미래를 찾았다. 주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집 한 채를 통째로 떠받쳤다.

알래스카에서 여자들은 묻지 않는다. 행동한다.

삶은 짧고, 밤은 길고, 진실에는 구경꾼이 필요 없는 곳이다.

성찰 -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내게 단순하고 맹렬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 않는다. 집을 지는 사람과 그 집을 남에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 주에서 집을 지는 것은 그들이다.

나는 연약함을 보지 않았다. 품위를 보았다. 평화에서가 아니라 폭풍에 익숙해진 데서 오는 고요를 보았다. 불평해 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불평하지 않는 여자들을 보았다.

알래스카 여자들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들을 정말로 볼 만큼 오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시간 없는 어머니, 근무 시간 없는 일꾼, 관객 없는 수호자다. 그들은 박수를 청하지 않는 사회의 일부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청하지 않을 것이다.

알래스카 여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사막에 난 벌어진 상처다. 먼지와 협곡과 침묵이 펼쳐진 땅, 그 침묵은 신을 모독하지 않고 심판한다. 이곳에서 태양은 따뜻하지 않다. 태운다. 그리고 밤은 서늘하지 않다. 갈라놓는다.

국경의 주다, 모든 길이 용의자를 실어 나르는 곳. 이민자, 국경 순찰대원, 원주민 부족, 퇴역 군인, 트럭 운전사, 혼자 사는 여자, 깨진 가족: 모두가 용서 없는 더위 속에 뒤섞여 있다.

도시들은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진실이 느껴진다: 애리조나는 사막이고, 인구 유출이고, 마약이고, 문화 간의 충돌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원주민의 뿌리이고, 지평선 없는 고독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곳에서 그들은 폭풍의 눈 속에 산다: 국경과 정체성 사이에서, 생존과 자존심 사이에서, 폭력과 자유 사이에서.

애리조나의 여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호피나 나바호 원주민– 멕시코 이민자– 유명 도시의 싱글맘– 국경 순찰대원– 보호구역의 간호사– 탈출을 꿈꾸는 피닉스의 학생.

하지만 어떤 역할에든 같은 짐이 있다: 멈출 수 없는 채로 버텨야 한다는 것.

국경 여성 경찰관, 38세

세계 어디에서든 경찰과 마주치는 일은 언제나 자신이 있는 사회에 대한 시험이다. 나는 늘 그것을 그 땅과, 그 땅의 규칙과, 그 한

계와, 그 유령들과의 정면 대결로 겪어 왔다.

그날 오후 나는 자유롭게 독립적인 기분을 느끼려고 차를 빌렸다. 길이 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길은 결코 당신 것이 아니다. 길이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나는 쉬지 않고 네 시간을 달렸다. 그리고 다섯 시간. 애리조나 사막은 용서가 없다: 끝없는 협곡, 몸서리치게 하는 침묵, 모두 똑같아 보이는 수 마일의 길.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 한 대. 정지 명령.

한 여자가 내렸다. 뚜렷한 멕시코계 이목구비, 강렬한 검은 눈, 뒤로 묶은 검은 머리, 붉은 입술. 짙은 Ray-Ban, 그리고 사막 그 자체로 빛은 것 같은 몸.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에게 말했다:

“미인 대회에서 도망쳐 나오셨나요?”

그녀는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게 두지 않았다. “웃기지 마세요. 서류 꺼내요, 안 그러면 체포합니다.”

지극히 냉철했다. 치명적이었다. 프로였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건넸다. 늘 하는 질문들: 왜 그렇게 국경가까이에 있는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왜 몇 시간째 일직선으로 달리고 있었는지. “버섯 따러 왔다고는 못 하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진짜 미국을 보고 싶어요,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미국을요.” 그녀는 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나를 뜯어보았다. “왜 술이 없죠? 왜 담배를 안 피워요?” “전직 럭비 선수예요. 악덕은 하나만 남았어요.” “음식?” 그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개요?” 그녀가 웃었다. “아니요.” 그녀가 굳었다. 내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위험한 영역이었다: 그녀에게는 권력과 권위가 있었고, 허락을 구하지 않는 성격까지 있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모든 것이 시

작된 존재, 우리를 만든 존재, 우리를 살게 하는 존재,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는 존재.” “누구요?” “여자요.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류를 돌려주었다.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갈 길이 아니에요.” 나는 떠났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밤이 왔다.

그리고 밤 10시, 호텔 로비에서 나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사복 차림. 같은 눈빛. 같은 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

그녀가 다가왔다. “한잔 마셔도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왜 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실을 말했다:

“위험을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리고 나는 떠났다.

나바호 여자

그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나중에 캠퍼스에서 초청 연사로 강연할 예정이었다. 업무용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 ‘Campus’라고 적힌 첫 버스에 올랐다. 단순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실수였다.

한 시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길, 다른 풍경, 그리고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버스가 멈췄다. 종점.

나바호 보호구역.

다음 버스는 이튿날에야 떠날 것이었다. 전화도, 연락처도, 동료들에게 알릴 방법도 없었다. 다음 날 나타나서 착오를 설명해야 할

것이였다. 그런 일은 있다. 삶은 예고하지 않는다.

보호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인디언 추장은 몇 년 만에 돌아온 친척처럼 나를 끌어안았다. 그는 자기 아내와 딸과 가까운 친척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구경을 시켜 주고, 마실 것을 권하고,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을 위한 잔치를 열 거예요.”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우연히 거기 오게 된 것이였다. 아니면 때로 운명은 실수로 변장하고 오는지도 모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받아들였다. 사막이 결정하게 두었다.

버펄로 고기. 피로 만든 떡. 감자, 고추, 양파. 끝없는 맥주와 술. 어디를 보나 전통 의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느린 북소리. 그리고 내게 흰 깃털이 달린 모자를 씌워 주는 추장의 딸.

그녀는 진짜 나바호였다. 말이 없었다. 주의 깊었다. 모든 것을 보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데 익숙했다. 전통과, 노동과,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집안의 상처와, 콘크리트 아래에서도 죽지 않는 정체성 속에서 자라는 그런 여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John Wayne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 하지만 거꾸로였다: 그들은 침략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추장의 티피에서, 버펄로 가죽 위에 눕혀 재웠다. 옷은 없이. 오래된 의식이였다. 나는 받아들였다. 나를 맞아 준 세계에 맞서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 뒤 추장의 딸이 들어왔다. 같은 차림. 말은 없었다. 그저 곁에 있었다.

그러고는 추장과 그의 아내가 왔다, 각자 자기 가죽 속에, 각자 자기 자리에. 그들은 딸을 살폈다. 그리고 나를 살폈다. 흐뭇하게. 평온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실을 찾았다. 그녀는 갈대밭과 강을 가리켰다.

강에서 씻으려 했지만, 물은 탁하고 물고기가 가득했다. 나는 갈대밭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어 보였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자리를 잡자마자, 인디언 두 명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이라는 듯 손에 신문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또 한 명.

온 마을이 같은 갈대밭에서 똥을 누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명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막 떠나려 하고 있었다. 놓칠 수 없었다.

추장의 딸이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에게 내 노트북을 주었다. 연락을 이어 갈 방법. 하나의 기회.

하지만 그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다. 법이다. 확인을 구하지 않는 기억이다.

유령 도시의 간호사 - 45세

갑상선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먹지 않는데도 살이 쪼다.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약국에 가 보았다: 처방전 없이는 약도 없었다. 슈퍼마켓에 가 보았다: 처방전 없이 파는 약도 없었다. 남은 방법은 병원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Conchita.

간호사. 마흔다섯 살. 그녀는 애리조나의 버려진 지역에 살았다, 더위가 저주처럼 짓누르고 밤이 악물 과다 복용과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과 빈집들로 가득한 곳. 유령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채로도 사라진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일 절망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다친 사람들, 깨진 가족들을 보았다. 나 같은 사람—외국인에,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르고, 갑상선 약 때문에 왔을 뿐인 사람—은 급한 문제 목록에 없었다.

그런데도 절차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Obamacare는 모두에게 치료를 제공했다, 그렇다, 하지만 입원했을 때만이였다.

나는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고집부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근처 호텔에 묵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녀에게 내 이름을 남겼다: Ferdinando. 다른 것은 없었다.

나는 떠났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호텔 전화가 울렸다. 프런트 직원이 어떤 부인을 올려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로비로 내려오겠는지 물었다.

나는 내려가기로 했다.

Conchita가 거기 있었다. 사복 차림이었다. 제복도, 역할도 없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펍에 갔다. 마주 앉자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내 약이 들어 있었다. 그녀

는 중독자에게 마약을 건네는 사람처럼 그것을 건넸다. 같은 조심스러움, 같은 위험, 같은 은밀함으로.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에야 이해했다.

“약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부탁하시는 방식 때문이에요. 그 태도. 그 예의. 그 스타일.”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비명과 응급 상황과 폭력과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자는,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려주는 사람을 곧바로 알아본다.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부재로 가득한 사막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어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투손의 웨이트리스 – 22세 이민자

오후에 나는 단것이 당겼다. 배고픔이 아니라 애정 결핍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 가장 간단한 처방은 식당에 앉아 달콤한 것을 주문하는 것이었다.

웨이트리스가 곧바로 왔다. 작고, 가냘프고, 몸은 연약하지만 움직임은 재빨랐다. 치마 입은 Speedy Gonzales의 여동생 같았다: 발목에 불이라도 붙은 듯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갔다.

“몇 살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주문서를 보지도 않았다.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상관이에요? 먹고, 돈 내고, 가세요.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몸무게는 22킬로그램. 성깔은 20톤. 유리병에 든 순수한 다이너마이트.

주인이 곧바로 나와서 사과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멕시코에서 아무것도 없이 왔다고 했다: 돈도, 가족도, 든든한 서류도, 확실한 것도 없이. 살아남으려고 테이블 시중을 들었고, 애리조나가 좀처럼 주지 않는 미래를 바랐다.

그녀는 서두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서두름을 안고. 그리고 그 서두름이 그녀의 한계였다.

나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다. 편지를 썼다. 낭만도, 환상도 없이: 진실만을. 나는 그것을 주인을 통해 그녀에게 남겼고, 주인은 존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싶었다.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등에 한 대.

나는 돌아섰다.

그녀였다.

일그러진 얼굴, 불안한 눈, 가쁜 숨.

“스물두 살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대체 어디서 자는 거예요? 밤새 찾아다녔어요. 경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의 그 아가씨였지만, 갑옷이 없었다. 어른들을 집어삼키는 세상 속의 한 아이.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떠났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존중해서다. 어떤 연약함은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놓아주어야 한다.

에필로그 -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풍경이 아니다: 국경이다. 그리고 국경은 건너는 것이 아니다. 맞서는 것이다.

이 주에서 더위는 기온이 아니다: 심판이다. 사막은 공간이 아니다: 고독이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틴다.

나는 네 여자를 만났고, 그들 모두에게는 같은 낱말이 있었다: 생존. 이를 악물고 무장했지만 자기가 순찰하는 사막만큼이나 외로운 국경 순찰대원. 용서 없는 땅과 결코 아물지 않는 기억의 딸인 나바호 여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돌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을 구하는 유령 도시의 간호사. 분노와 연약함의 스물두해, 자기보다 큰 세상과 전쟁 중인 이민자 웨이트리스.

네 개의 다른 길. 안에는 같은 사막.

애리조나에서 여자들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온 힘을 다해 미래를 찾는다. 그리고 찾지 못하면 계속 걷는다. 멈추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협곡을 보려고 이 주를 건넌다. 여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이 주를 건넌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말없이 그렇게 한다.

성찰 - 애리조나

사막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 혼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애리조나의 여자들이다. 매일. 매일 밤. 숨 막히는 기후와, 강할 수 없을 때조차 강하기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불평할 시간이 없는 여자들이다. 꿈꿀 시간이 없다. 실수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언제나 하는 일을 했다: 그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듣고, 그러고는 놓아주었다. 존중은 붙잡지 않는 데서도 오기 때문이다. 애리조나는 내게 일깨워 주었다, 이해받기를 청하지 않는 삶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삶들은 그저 무시당하지 않기를 청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아칸소

아칸소는 언덕과 강, 빼적대는 목조 주택들 사이로 느리게 이어지는 곡선이다. 소리를 내지 않는 주다. 소리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대만 남았다: 농업 노동, 잊힌 광산, 고립된 공동체, 가난이 한때가 아니라 유산인 동네들.

그것은 지도 밖에서 사는 미국이다. 부는 서쪽에 있다. 현대성은 북쪽에 있다. 나머지는 여기 남는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아칸소의 여자들은 남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안정한 가정, 무너져 가는 집, 부재하거나 과로에 시달리는 남편. 아칸소의 여자는 일찍 자라고, 일찍 결혼하고, 일찍 늙는다.

그녀는: - 전업 어머니 - 자격증 없는 간호사 - 즉석 심리상담사 - 요리사, 운전사, 교육자 - 슈퍼마켓, 농장, 저가 진료소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칸소에는 또 다른 얼굴도 있다: 거칠고, 숨겨져 있고, 힘을 주지만 삶을 앗아 가는 일들로 이루어진 얼굴. 그녀는 또한: - 마을 전체의 비밀을 아는 우체국 직원 - 보너스도 영광도 없이 스트레스만 있는 지역 회사의 관리자 -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무시당하고, 서류와 낮은 급여에 짓눌린 세무 공무원 - 징계나 보호를 이유로 이곳에 전출되어 침묵을 강요당한

FBI 요원 –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공동체에 물을 보장하는 상수도
기술자 – 치료를 약속하지만 고된 교대 근무를 내주는 제약 회사
의 노동자

신앙은 닳아있다. 고된 노동은 일상이다. 외로움은 기본이다.

이곳의 여자들은 해방을 찾지 않는다: 숨 돌릴 틈을 찾는다. 그리고
대개 그것을 찾지 못한다.

우체국 직원 – 48세

아칸소에서 우체국은 마을의 심장부에 있다. 편지와 소포가 오가는
곳 이상이다. 그곳에는 소문, 수표, 불만, 사기, 고백이 돈다.

그녀가 우체국을 지탱한다. 그녀는 모두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에게는 어머니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우체국에서 보
낸 35년, 어떤 역학은 곧바로 알아볼 수 있다: 경직된 위계, 소수에
게만 주어지는 신뢰, 손에서 손으로 오가지만 늘 통제 아래 있는
돈. 나는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이미 알고 들어갔다. 예측 가능성
은 이점이다.

48세의 국장 Kriss가 자기 사무실 문을 열어 준 것은 농담 같은 일
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나를 “외국인 컨설턴트”처럼 대했다. 아무
도 믿지 않는 데 익숙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하는 데 지친 여자들
이 지닌,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그런 태도로.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그다음,
더 용기를 내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첫 장벽을 넘자, 돈과 그녀의 일상 도구에 닿으면서 나머지가 녹아
내렸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본부와의 어려운 관계, 막힌 승
진, 깨진 약속, 끝없는 감사, 인정은 제로.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도발 삼아 던지듯 라틴어 한 구절만 말했다: “Do ut des.” 당신이 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준다.

그녀는 즉시 알아들었다: “도와주신다면 원하시는 건 뭐든 드릴게요.”

사흘에 걸쳐 나는 본부에 보낼 편지를 여러 통 준비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읽고, 연서하고, 발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내가 컨설턴트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동의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 직원에서 관리자로 전환 - 급여 인상 - 같은 역할 - 훨씬 적은 감사.

그녀는 기뻐 뛰며 사무실을 나왔다. 적어도 5년 동안 그녀가 안고 다닌 문제였는데,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저녁에 그녀는 나를 저녁 식사에 데려갔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누군가 준비를 도와준 게 분명했다: 동료들, 친구들, 그녀의 딸. 모두가 “방치된 여자”에서 “눈에 띄게 여자”로 넘어가는 그 변화에 참여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계산하러 카운터로 갔다. 그녀는 계산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주인이 그녀를 말렸던 것이다: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나는 미리 일러두었다: “저분한테서는 한 푼도 받지 마세요. 제 계산입니다.”

Kriss는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가자고 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당신이 받을 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나는 먼저 가라고, 조금 뒤에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나는 그 주를 떠났다.

사흘 뒤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내 행동에 실망했지만 고맙기도 하다고 했다. 그녀의 말로는, “내 삶을 바꿔 주고도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은 특별한 남자”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항로를 벗어난 FBI 요원 - 38세

굵직한 수사, 무거운 브리핑, 남의 삶을 결정하는 남자들이 있는 유리 벽 회의실에 익숙한 채 워싱턴에서 왔다. 이제 그녀는 아칸소 교외의 한 지부에 있다: 싸구려 마약, 가정 폭력, 완고한 침묵. 그녀의 권력은 쓸모가 없다. 그녀의 고독은 그렇지 않다.

나는 대사관에 내 능력과 약점을 신고하러 그곳에 있었다. 표준 절차.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간다: Marion, 38세, 강제로 전출된 연방 요원.

“말 편하게 해요, Nando.” 그녀가 곧바로 말했다. “말해 봐요: 약점이 있어요?”

“네. 여자요.”

그녀가 굳었다. “무슨 뜻이죠?”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그리고 떠나요.”

“왜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늘 같은 이로 씹지만, 우리는 이가 훨씬 많으니까요. 행동의 문제예요: 모든 걸 붙잡을 수는 없고, 모든 걸 간직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이제 분석받고 싶어 했다. “그럼 나한테도 해 봐요. 내가 왜 여기로 전출됐는지 말해 줘요. 당신이 보는 걸 보여 줘요.”

3분.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녀가 무너지기에는 충분했다.

그녀의 문제는 단순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FBI 같은 기관에서 그것은 저주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

로 만들고, 그들은 당신의 수사를 빼앗고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곳으로 보낸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여과 없이.

처음에 그녀는 거부했다. 그러다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무도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안듯이 나를 안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논리적인 행위였지만, 그녀의 서명은 감정적이었다.

나오는 길에 나는 워싱턴에 전화했다. 전근을 요청했다: “마이애미로 옮겨 주세요. 여기로는 옮길 수 없어요. 거기서는 자유로울 거예요.”

여섯 달 뒤에도 Marion은 여전히 나와 연락하고 있었다. 전화, 이메일, 만나자는 요청.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미래는 없어요. 나는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FBI였다. 그리고 FBI가 당신을 노리면,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제약 회사 노동자 - 55세

그녀는 온 나라에 공급되는 약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한다. 강렬한 아이러니: 그녀는 남을 치료하고, 자신을 중독시킨다. 독한 화학 물질, 고된 교대 근무, 절반만 보호해 주는 마스크,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급여.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모두가 그녀의 손을 거친 알약을 먹는다.

내가 들어가게 된 건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코로나 이후의 어느 저녁 식사에서 시작됐다. 나는 웃으며 Pfizer를 네 번 맛

았는데 모두 같은 로트였고, 그 로트에 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Viagra 변이”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농담. 내 농담 중 하나.

하지만 옆 테이블의 누군가가 들었다. 그리고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다. 그다음엔 온 세상에.

제약 회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이해하려고.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좋은 사회적 소문이 주가를 두 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공장 안으로 데려갔다. 들어서자마자 13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내 얼굴은 빨개졌고, 그들은 내가 “비밀”을 밝히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농담이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

관리자, 임원, 비서들이 나를 둘러쌌다: 저마다 디테일 하나, 확인 하나, 기술적 진실의 단서 하나를 원했다.

그러나 나에게 면담을 청한 사람은 한 노동자였다. 55세, 화학 물질에 망가진 손, 보이지 않는 노동의 세월로 굽은 등. 그들은 그녀를 나와 함께 한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녀는 우울한 얼굴로 들어왔다. 텅 빈 채. 지친 채.

우리는 45분 동안 이야기했다.

백신 이야기가 아니었다. 로트 이야기도 아니었다. 기적의 정력 이야기도 아니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상인 척 넘어간 실패에 대해. 그곳에서는 아무도 꿈을 가질 사치가 없기에 묻어 버린 꿈에 대해.

나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진실만 말했다: “꿈은 병을 고치지는 않지만,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가장 싼 약보다도 싸요.”

그녀는 웃으며 나갔다. 동료들은 그녀가 만능 해독제라도 찾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비밀이었다: 말은, 제자리에 놓을 줄만 알면, 공기가 없던 곳에 공간을 연다.

그리고 그날 그녀에게는 숨 쉬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우아한 도둑 여자 - 30세

그녀는 본능으로 흠치지 않는다. 아칸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흠친다.

그녀는 교양 있고, 똑똑하고, 무서울 만큼 뛰어나다. 관리자, 교수,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대신 그림자가 되었다: 집과 채팅, 신분, 약속, 놓쳐 버린 기회들 사이를 오간다.

나는 그녀를 온라인에서 만났다. Skype로 도움 요청이 왔다. 깔끔한 프로필, 암호 같은 이름: Last A. 그녀를 아름답다고 하는 건 모욕이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도둑이라는 건 자연스러웠다. 어리석다는 건 정상이었다. 완벽한 화장을 한 수수께끼.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도와주었다.

1년 안에 그녀는 14,000달러를 모았다. 모두 그녀가 말한 필요를 위해서였다.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영상 통화도 한 번도 없었다.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없었다. 오직 디지털 편지, 정성껏 다듬은 요청, 진짜처럼 보이는 긴급 상황뿐.

내가 당해 본 가장 달콤한 사기였다.

결국 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다. 리틀록. Bill Clinton과 Hillary Clinton의 도시.

나는 그녀의 어머니 Rita를 만났다. 친절하지만 혼란스러운 여자로, 자기 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 쉬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돈을 더 달라고 했다.

진실을 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나의 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번 돈의 55%를 넘겨주었다. 필요가 만든 전문가. 모두가 내게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게임에 넘어갈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고. 돈을 내고. 계속하고. 받아들였느냐고.

하지만 답은 단순했고, 내 안에서는 분명했다: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나쁜 쪽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 반대를 보여 줄 때조차, 자신이 할 수 있는 선만 본다.

에필로그 - 아칸소

아칸소는 주가 아니다. 느린 덧이다. 가난과 침묵, 최소한의 일,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져 가는 삶들의 그물. 내가 여기서 만난 여자들은 구원을 청하지 않았다. 그저 숨 쉴 자리를 청했을 뿐이다.

마을의 모든 비밀의 여왕인 우체국 직원은 자기 가치를 되찾기만을 원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FBI 요원은 범죄보다 자기 자신과 더 많이 싸웠다. 알약과 화학 물질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제약 회사 노동자는 조금씩 자신을 중독시키며 세상을 구했다. 그리고 우아한 도둑은... 이 주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똑똑하고, 뛰어나지만, 삶이 강요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칸소는 내게 한 가지 단순한 것을 보여 주었다: 이곳에서 여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남는다. 어떤 이는 버틴다. 어떤 이는 도망쳤다. 어떤 이는 빛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부채한 채 남는다. 없어서가 아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찰 – 아칸소

이 주에서 나는 가난이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감정적, 문화적, 정신적 조건이다. 자신은 다른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깊은 확신이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쓰이지 않은 운명과 싸워야 한다.

아칸소의 여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녀는 맨손으로 미래를 짓는다. 매일. 기회를 말하지만 생존만 나눠 주는 사회 안에서.

나는 여기서 분명한 것 하나를 보았다:

여자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도록 내버려질 뿐이다.

그리고 진짜 죄는 가난이 아니다. 바라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나는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보고, 듣고, 쓴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이 땅에서 끌어낸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들은 이곳의 모든 것처럼 묻힌 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과 먼지와 수치 속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주가 아니다: 집단적 환상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태양, 야자수, 영화, 기술, 바다, 아메리칸드림. 아래에서 겪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균열이다: 절대적 빈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극단적 부, 들판의 수확 옆의 첨단 기술 노동, 문 닫힌 저택들, 보도 위의 비닐 텐트. 세상이 가능성을 찾으러 와서 미리 쓰인 위계를 발견하는 곳이다.

여자들에게 캘리포니아는 거짓 약속이다: – 겉보기의 자유 – 선언된 권리 – 과시되는 기회.

그러나 규칙은 언제나 같다: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곳의 부재는 침묵이 아니다: 시스템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남겨두는 몸들이다.

실리콘밸리의 여자 – 39세

사람들은 그곳을 “혁신의 수도”라고 부르지만, 실리콘밸리는 닫힌 봉토다. 권력은 남성이고, 백인이거나 아시아인이고, 공학 기반이며, 망상에 이를 만큼 경쟁적이다.

이곳에서 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환영받는다: – 다양성 프로그램 – 기업 윤리 강령 – 성평등 패널 – 연례 보고서 속 웃는 사진들.

그러나 중요한 방 안에서는 장면이 다르다.

그녀는 학위가 둘, 석사 학위가 있고, 완벽한 영어와 높은 기술 역량을 갖췄다. 디지털 제품,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일한다. 세 사람이 진짜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회의로 하루를 보낸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한 사람은 화면에.

그들은 소프트 스킬, 중재 능력, 공감을 요구한다. 그녀에게 지휘가 아닌 조정 역할을 맡긴다. 그녀가 있기를 바라지만, 주인공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 시스템에서 출산은 물류상의 이상 현상이다. 혜택, 휴가, 지원, 난자 동결 시설, 회사 어린이집이 있다—그러나 언제나 말하지 않는 조건 하나가 붙는다: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임신하면 그녀는 잠재적 문제로 여겨진다. 임신하지 않으면 “치마 입은 남자”로, 다른 모두처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그녀는 도구다: 결코 관심의 중심이 아니다.

저녁 회의, "긴급" 주말, 아시아나 유럽과의 심야 통화는 당신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스템은 전적인 대기 상태를 요구한다.

그녀가 무너지면 – 번아웃, 불안, 불면, 의미의 위기 – 답은 언제나 같다: – 요가 – 마인드풀니스 – 개인 치료.

구조적 개편은 결코 없다. 권력의 진정한 재분배도 결코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물리적이지 않다: 상징적이다. 그녀는 모든 과정에 있지만, 최종 인정에는 결코 없다.

기술은 세상에 여성 역량 강화의 서사를 판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여자들은 인정해야 할 기둥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예외로 남는다.

센트럴밸리의 이주 여성 – 28세

센트럴밸리는 관광객이 보지 않고 영화가 찍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일부다.

그것은 나라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농업 회랑이다: – 과수원 – 채소 – 아몬드 – 포도밭 – 가공 산업.

이 풍경 속에서 이주 여성은 사슬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중앙아메리카에서, 실질적 대안이 없는 가난한 공동체에서 온다. 많은 이가 서류가 없고, 다른 이들은 불안한 서류를 가졌으며, 모두가 같은 조건을 공유한다: 그들의 존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 달려 있다.

그녀는 들판에서, 온실에서, 포장 공장에서 일한다. 지치게 하는 교대 근무, 굶은 등, 극심한 더위, 공기 중의 농약, 은밀하고 끊임없는 감시. 그녀는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보고, 모든 것을 듣는다.

임금은 낮고, 실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초과 근무 시간이 늘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병가는 보장되지 않는다: 일을 빠지는 사람은 대체된다.

폭력은 만연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직장 내 괴롭힘 – 성적 협박 – 해고 위협 –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

신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침묵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집에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그녀는 공공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대표자가 없고, 농업이 결정되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며, 생태 전환이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이 논의될 때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그녀는 공식 서사 속에 자리를 가질 권리도 없이 한 나라 전체의 먹거리를 떠받치는 여자다.

캘리포니아는 스스로를 “친환경”으로, 환경과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는 곳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그 농업 심장부의 들판에서 여자들은 어떤 슬로건도 거짓으로 만드는 조건에서 일한다.

이미지 산업의 여자 – 32세

할리우드, 방송 스튜디오, 디지털 플랫폼, 에이전시, 광고, 소셜 미디어. 캘리포니아는 이미지에 기반한 세계 경제를 세웠다. 이 기계 장치의 중심에는 표면으로 쓰이는 여자가 있다.

배우, 엑스트라, 모델, 인플루언서, 배경 인물. 그녀를 바라보는 첫 번째 기준은 윤리적, 문화적, 직업적인 것이 아니다: 미적인 것이다.

“여성 역할”에는 정해진 범주가 있다: – 광고용 젊은 여자 – 가족 캠페인용 “평범한” 여자 – 일부 타깃을 위한 과도하게 성적화된 몸 – 다른 타깃을 위한 안심시키는 인물.

캐스팅은 단순한 선발이 아니다: 문화적 필터다. 누가 보여 줄 만 한지, 누가 팔릴 만한지, 누가 거절될 만한지를 정한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요구는 언제나 같다: – 일정 체중에 맞출 것 – 메이크업, 보정, 수정을 받아들일 것 – 고정관념적 대본에 맞출 것 – 돈 내는 사람에게 반박하지 말 것.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까다롭다”고 여겨진다. 학대나 협박을 고발하는 사람은 고립되고, 낙인찍히고, 흔히 침묵으로 대체된다.

대형 글로벌 캠페인은 보디 포지티브, 존중, 역량 강화, 포용을 말한다. 그러나 사무실 복도에서, 캐스팅 오디션에서, 제작 회의에서 진짜 기준은 낮고, 진부하고, 폭력적인 채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 여자는 이미지로서는 과도하게 보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심리적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단절되고, 브랜드로 변하고,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재도록 강요받는다: 조회수, 좋아요, 팔로워, 참여도.

광고판에 인쇄된 완벽한 얼굴 하나하나 뒤에는,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통제력도 갖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노숙인 여자 – 50세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숙인 인구 중 하나도 있다.

고가도로 아래의 텐트, 수로를 따라 늘어선 임시 야영지, 자동차와 낡은 캠핑카에서, 그리고 주거 통로로 변한 보도 위에서 사는 사람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كل랜드, 샌디에이고: 가난은 어디에나 있다. 보이면서 무시당한 채.

노숙인 여자는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 가난한 여자로서 – 취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그녀에게는 흔히 이런 사연이 있다: – 감당할 수 없는 월세 – 잃어버린 일자리 – 파괴적인 이별 – 가정 폭력 – 치료받지 못한 건강 문제 – 마취제로 쓰이는 중독.

밤은 결코 휴식이 아니다: 방어다. 몇 안 되는 것을 지킨다. 침낭 하나, 가방 하나, 서류 한 장, 추억 하나. 사회 서비스는 있지만, 그것은: - 느리고 - 부족하고 - 관료적이고 - 때로는 굴욕적이다.

노숙인 여자들은 정확한 통계에서 빠져나간다: 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 공격을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 두려워서 쉼터에 가지 않는 사람들, 아이를 빼앗길까 봐 아이를 기관에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녀의 부재는 도덕적이다: 사회는 그녀를 보지만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문제로 묘사될 뿐, 결코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묘사되지 않는다.

디지털 포용,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캘리포니아는 공공 분수에서 머리를 감고,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무료 급식소 덕분에 먹는 여들과 함께 존재한다.

그들 중 누구도 “극단적 사례”가 아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델의 정상적인 결과다.

에필로그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세계의 진열장이자, 동시에 세계의 뒷방이다.

바깥에서는 전시한다: - 기술- 영화- 음악- 대학- 혁신

안에서는 숨긴다: - 농업 착취 - 부동산 불평등 - 극단적 불안정 - 중독 - 구조적 노숙. 이곳에서 여자들은 부족해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의 포화 때문에 부재한다.

한 장소가 여성의 몸을 어디에나 끊임없이 전시할 때— 화면, 광고판, 영상, 광고, 소셜 미디어 피드—그곳은 세상에 여자들이 중심에 있다는 환상을 준다.

현실에서는: -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여자는 거의 결정하지 못하고 - 들판의 이주 여성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고 - 이미지 업계의

전문가는 기성품 역할 속에 압축되고 – 노숙인 여자는 시선으로 피해진다.

캘리포니아는 부재가 단지 공백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것은 실질적 권력 없는 과잉 대표일 수 있다.

여자들이 어디에나 등장하지만, 세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인정받는 주다.

성찰 –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부재는 서리다. 앨라배마에서는 역사다. 애리조나에서는 국경 위에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이다.

이곳에서 여자들의 부재는 이런 것들로 가려진다: – 진보적 슬로건 – 올바른 광고 캠페인 – 평등에 관한 콘퍼런스 – 동기 부여 스토리텔링.

우리는 “포용”을 말하지만, 진정한 포용은 세 가지 구체적 기준으로 측정된다: – 누가 결정하는가 – 누가 더 많이 받는가 – 누가 거절할 여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점에서 캘리포니아의 여자들은 –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 너무 자주 뒤에 남겨진다:

– 관리자는 완전한 권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용인된다 – 이주 여성은 항의 없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한 내버려진다 – 이미지 전문가가는 타킷에 부합하는 한 쓰인다 – 노숙인 여자는 교통이나 체면을 방해하지 않는 한 무시된다

세상은 미래를 이해하려고 캘리포니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곳을 떠받치는 여자들을 정말로 바라본다면, 단순한 진실 하나를 발견할 것이다:

어떤 곳에도 미래는 없다, 다음 사람들의 부재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곳을 떠받치는 사람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 책에 들어 있다. 신화로서가 아니라, 엽서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가 아니라. 증거로서.

세계 상상력의 수도 중 하나, 그곳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언제나 같다: 결코 화면에 오르지 않는 여자들의 진짜 삶.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단순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다. 두 극단 사이에서 사는 미국이다:

– 보호처럼 보이는 산들 – 사회 실험실처럼 기능하는 도시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고, 겉으로는 진보적인 지역이지만, 눈에 띄게 분명한 모순이 있다: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 보이지 않는 분리, 기술직 노동, 출입이 통제된 주거 단지, 소리 없는 사회적 고립.

이곳에서 여자들은 눈에 띄는 폭력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지나친 질서, 문화적 압박, 숨 막히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사라진다.

콜로라도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돌려주는 주다. 그곳에 사는 여자들은 어려운 균형을 유지한다:

– 기술적이고 정신적인 노동 – 전적인 존재를 요구하는 가족 – 지켜보고 판단하는 공동체 – 설 자리가 없는 정신 건강 – “삶의 질”로 위장한 지리적 고립.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는 주가 아니다. 미끄러지는 당신을 아무도 보지 않아서 넘어지는 주다.

덴버의 여자 - 35세

덴버는 현대적이고, 기능적이고, 깨끗하다. 모두가 기술, 스타트업, 삶의 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대가로는 극히 적게 주는 도시다.

그녀는 전문직이다: - 학위 - 기술 역량 - 안정된 직장 - 중상위 급여.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녀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 산다: 성과, 목표, 회의, 프로젝트 관리, 매주 측정 가능한 결과.

회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끊임없는 대기 상태를 요구한다.

그녀에게는 비싼 아파트, 꽉 찬 일정, 꼼꼼하게 정리된 삶이 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탈진 때문에 무너진다.

그녀의 부재는 정신적이다. 그녀는 늘 일하고, 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무언가 부서질 때까지. 그리고 부서질 때, 그것은 소리 없이 부서진다.

산골 마을의 여교사 - 42세

덴버와 볼더를 벗어나면 콜로라도는 얼굴을 바꾼다. 산, 작은 공동체, 겨울에는 남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름에는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러 몰려드는 마을들.

이곳에서 교사는 지역의 기둥이다: - 그녀는 가르친다 - 그녀는 이끈다 - 그녀는 길을 지킨다 - 그녀는 모두를 안다 - 그녀는 심리적 버팀목이다 - 그녀는 아이들에게 확대 가족이다.

그녀는 눈과 고립된 길, 작은 학교들 사이에서 산다. 업무량은 엄청나고, 급여는 제한적이다.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그녀는 공동체를 떠받치지만 정치적 결정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그녀는 인정받지 못한 채 한 고장 전체를 지탱하기 위해 일하는 여자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여자 - 30세

콜로라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호구역이다. 현대성보다 역사가 더 무겁게 짓누르는 곳들.

원주민 여성들은 세 겹의 억압을 겪는다: - 구조적 빈곤 - 내부의 가부장 문화 - 외부의 제도적 방치.

그녀는 흔히 사회 프로그램, 부족 학교,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보건소에서 일한다. 중독, 우울증, 가정 폭력, 그리고 완전히 고립시키는 지리적 거리와 싸운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현대의 콜로라도는 그녀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그녀의 공동체는 그녀가 스스로를 새로 만들 권리를 늘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세상이 외면하는 동안 한 민족 전체를 떠받치는 여자다.

스키 리조트의 여자 - 27세

아스펜, 베일, 브레컨리지, 텔루라이드. 사치, 돈, 겨울 스포츠, 계절 경제.

이곳에서 일하는 여자는 - 웨이트리스, 바텐더, 시설 운영 요원, 리셉셔니스트, 강사 - 두 개의 세계를 산다:

- 엄청나게 부유한 관광객들 - 모든 것을 떠받치는 노동자들

그녀는 정해진 시간 없이, 낮은 임금으로, 흔히 불안정하게 일한다. 월세를 감당하려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좁은 방을 나눠 쓴다.

그녀는 부에 둘러싸여 있지만 고립된 채 남는다. 거만한 관광객, 계절 관리자, 끝없는 요구를 상대해야 한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부를 만들어 내지만 가난하게 남는다.

에필로그 -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다. 질서 정연하고, 부유하고, 현대적이고, 사회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서류상으로는. 그러나 그곳의 여자들은 세 개의 단층선 위에서 산다:

– 정신적 압박 – 지역적 고립 – 제도적 부재

스캔들도, 대규모 폭력도, 혼돈도 없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부재는 더욱 무겁다.

이곳에서 여자들은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그들이 버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넘어진다.

성찰 - 콜로라도

콜로라도 여자들의 힘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미묘하고, 현대적이고, 지적인 부재다. 알아보기 어렵고, 무시하기 쉽다.

콜로라도는 단순한 것을 가르친다: 부재는 가난, 폭력, 추위, 감금만이 아니다. 질서일 수도 있다. 안락일 수도 있다. 기대일 수도 있다.

한 여자가 혼돈이 아니라 “다 잘 돌아가고 있다”에 짓눌릴 때, 그때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 그러나 실재한다.

그래서 콜로라도도 여기 있다: 여성의 부재가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은 쉼 개다. 주마다 하나씩.

코네티컷

코네티컷은 많은 이가 상상하지만 진짜로 아는 이는 적은 주다. 밖에서 보면 우아하다: 흙잡을 데 없는 마을, 깨끗한 교외, 훌륭한 학교, 비싼 휘발유, 정돈된 보도, 완벽한 잔디밭의 집들. 미국의 “높은” 쪽,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쪽, 조직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쪽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 듯 보이지만, 이 균형은 자연스럽지 않다: 끊임없는 압박, 체면과 겉모습과 기대의 끊임없는 유지다.

코네티컷은 빛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세 가지만 참이라면 잘 살 수 있는 주다: – 사회적 경쟁 – 감정의 통제 – 공동체의 소리 없는 판단

이곳에서 여자들은 가난이나 눈에 띄는 폭력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강요된 적응 때문에 사라진다. 예의 바른 사라짐: 아우성도, 스캔들도, 뉴스도 없는.

세련된 부재이지만, 그래도 부재다.

보험 회사 사무실의 여자 – 40세

코네티컷은 미국 보험의 수도다. 하트퍼드는 어디서나 그렇게 선언한다: “세계 보험의 수도.”

그 슬로건 뒤에는 끝나지 않는 화면 앞에 앉은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있다: – 클레임 – 보험 증권 – 위험 알고리즘 – 디지털 서류 – 절차 – 지표.

그들의 일은 정밀하고, 기술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된다. 모든 실수는 회사에는 돈을, 그들에게는 시간을 치르게 한다. 모든 결정은 정당화되고, 문서화되고, 승인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하루는 통제의 사슬이다.

그녀는 시스템이 그녀에게 흠잡을 데 없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급여는 좋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훌륭하다.

그러나 감정적 대가는 극도로 크다.

이곳의 여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소리 없이, 천천히 비어 간다. 이 사무실들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어떤지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일은 어떻게 돼 가요?”라고 물을 뿐이다.

그녀의 부재는 정신적이다: 매일 출석하지만 자기 자신과는 단절되어 있다.

부유한 교외의 여자 - 45세

코네티컷의 부유한 지역은 별세계다. 거대한 집, 조용한 SUV, 완벽한 정원, 사립 학교, 오래된 사회 규범.

이곳의 여자들이 늘 “밖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회 체제 안에서 일한다.

그녀의 역할은 문화적이다: – 흠잡을 데 없는 어머니 – 보조를 맞추는 아내 – 위원회 참석 – 집안 관리 – 일정에 짜인 봉사 활동 – 완벽한 이미지.

그녀가 무너져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불행해도 드러낼 수 없다.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녀의 부재는 정체성의 표시다: 그녀는 연기해야 하는 역할 뒤로 사라진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 그녀는 어떤 금도 드러낼 여유가 없다. 우아한 감옥이지만, 그래도 감옥이다.

엘리트 대학의 여자 - 34세

뉴헤이븐에는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가 있다: 예일.

학계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이고, 세심해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경직성, 치열한 경쟁, 하늘 높은 기대가 있다.

여성 연구자는 역설을 산다: - 그녀는 교양이 있다 - 그녀는 유능하다 - 그녀는 준비되어 있다 - 그녀는 문화 생산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녀는 시스템에 짓눌리기도 한다.

출판, 학회, 연구비, 논문, 멘토링, 강의, 내부 관계. 삶과 정신과 몸 에 스며드는 끝없는 노력.

여성 동료들은 흔히 경쟁자다. 남성 동료들은 여전히 유서 깊은 교수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그녀가 생산하는 지식은 대학을 떠받치지만, 그녀의 경력은 더 느리게, 더 불확실하게, 더 유예된 채로 나아간다.

많은 이가 버틴다. 많은 이가 떠난다.

예일은 완벽한 채로 남는다. 그녀들은 그렇지 않다.

혼합 동네의 여자 - 31

세

부유한 교외 밖, 엘리트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짜 코네티컷이 있다: 낮은 임금, 높은 월세, 불안정한 일자리, 혼합 공동체, 그리고 늘 작동하지는 않는 사회 체제.

이곳의 여자들은 숨은 기둥이다: 슈퍼마켓, 공립 학교, 그룹홈, 복지 서비스, 소기업, 기초 의료에서 일한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틴

다: - 저임금 일자리 - 아이들 - 확대 가족 - 느린 대중교통 - 끊임 없는 스트레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역설 속에 산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에 살면서도 부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한다.

이곳의 부는 사적인 것이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 코네티컷

코네티컷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곳은 여자들이 소리 없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폭력 때문이 아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사회적 기대 때문이다.

매끄러운 표면의 결핍이다: 혼돈도, 고통도, 인상적인 통계도 없다. 높은 요구와 낮은 보상에 짓눌린 삶들뿐이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것을 위험하게 만든다.

성찰 - 코네티컷

많은 주에서 부재는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조심스럽다. 예의 바르다. "정상적"이다. 코네티컷은 한 여자가 다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집, 직장, 수입, 안전한 동네, 존경받는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사회적 완벽함은 얇은 칼날이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을 빼앗으면서 미소 지으라고 요구한다.

코네티컷은 부재가 지나친 질서, 지나친 체면, 지나친 통제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어떤 사회도 여자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게 허락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발전한 것이 아님을.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미끄러운 주다. 작고, 조용하고, 재정적으로 쪼들린다. 사소한 세부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작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곳에는 거대한 대도시도, 사막도, 산도, 눈부신 거울도 없다. 숨은 경제, 조심스러운 정치, 소리 없이 수십억을 움직이는 관료제가 있다.

델라웨어는 미국이 회사를 등록하고, 돈을 보관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곳이다. 중간에 있는 곳: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완벽한 회색 지대다.

델라웨어에서 여성의 부재는 폭발하지 않는다. 증발한다. 느리게, 꾸준히, 숫자에서도 공적 담론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곳에서 여자들은 소리 없는 과부하 때문에, 고려되기에는 너무 작은 일자리 때문에, 결코 국가의 서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할 때문에 사라진다.

기업 사무실의 여자 - 38세

델라웨어는 100만 개가 넘는 미국 회사의 법적 본거지다. 기업 서류, 합병, 신탁, 소유권 변경, 세무 서류, 수십억 규모의 거래를 보관한다.

세상은 이 일을 거물 관리자들이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창문 없는 칸막이 사무실에 앉아 끝없는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여자들이 한다.

그녀는 규칙과 절차와 통제로 가득한 정돈된 사무실에서 일한다. 실수 하나가 수백만을 치르게 할 수 있기에 그녀는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하루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양식, 서명, 프로토콜, 확인, 이메일, 체크리스트.

그녀의 일은 경제 체제 전체를 떠받친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구조적이다: 그녀는 권력의 서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채 종이 제국을 지탱한다.

창고와 물류의 여자 - 33세

델라웨어는 관료제만이 아니다. 항구, 화물 운송, 창고업, 공급망이기도 하다.

이곳의 여자는 이런 곳에서 일한다: - 냉장 창고- 분류 센터- 산업용 창고- 식품 회사- 야간 조정 업무. 고된 교대 근무, 빠른 속도, 굶은 등, 차가운 공기. 반복 동작, 부상 위험, 끊임없는 감독.

그녀의 급여는 낮다. 계약은 흔히 불안정하다. 그녀의 삶에는 여유가 없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열심히 일하고, 적게 벌고,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그녀는 세상이 대도시만 바라보는 동안 상업의 숨은 부분을 떠받치는 여자다.

1차 의료의 여자 - 47세

델라웨어에는 거대한 의료 체계가 없다. 최소한의, 극도로 취약한 1차 의료망이 있을 뿐이다.

이곳의 여자는 이런 것들을 떠받친다: - 요양원- 작은 의원- 지역 진료소- 방문 돌봄- 외로운 노인 지원- 잊힌 만성 환자.

그녀의 일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끝이 없다. 그녀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본다. 인정받지 못한 채 초과 근무를 한다.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번다.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그녀는 국가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를 대신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저소득 동네의 여자 - 29

세

델라웨어에도 취약한 곳들이 있다: 가난, 가정 폭력, 마약, 방치로 얼룩진 동네들. 이곳의 여자들은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마주한다: 불안정한 고용, 오르는 생활비, 빈약한 사회적 보호.

그녀는 계산원, 청소부, 계절 노동자, 베이비시터, 주방 보조로 일한다. 남의 집을 빨래하고, 청소하고, 돌보고, 정리한다.

그녀의 하루는 질주다: 아이들, 버스, 교대 근무, 장보기, 집, 문제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그녀는 재생을 말하면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 그 도시를 지탱하는 바로 그 여자들을 뒤에 남겨 두는 도시에 산다.

에필로그 - 델라웨어

델라웨어에는 캘리포니아의 드라마도, 알래스카의 혹한도, 남부의 가혹함도 없다.

그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보이지 않음의 한 형태로서의 정상성.

이곳에서 여자들의 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것은: – 기술적이고 – 반복적이고 – 필수적이고 – 조용하고 – 별로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폭발은 결코 없다. 끊임없는 마모가 있을 뿐이다.

여자들은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다. 집단으로 항의하지 않는다.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견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성찰 –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여성의 부재가 더 교묘한 형태를 띌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침묵의 완벽한 관리. 이곳에서 여자들은 이런 것들의 원동력이다: – 관료제 – 조정 – 기초 의료 – 최소한의 서비스. 그런데도 그들은 미국의 이야기에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부재는 소음이 아니다. 배경이다. 그리고 델라웨어가 그 증거다: 나라는 늘 지나가지만, 여자는 늘 멈춰 서 있는 곳.

Ferdinando Frega